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11

성약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룯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11, Covenants Excursus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한 발 물러나서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틀로 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성경의 주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 언약들은 모두 구약에 있고 심지어 신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앞서 가리킨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 세 권의 책 모두의 틀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각각, 또는 적어도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있고, 여호수아서에는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사기에도 비슷하지만, 사사기와 룯기의 다윗 언약을 앞지르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틀을 설정하고 무대를 설정하는 세 권의 책 모두에 적용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이 있다면 창세기 12장을 펴십시오. 거기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큰 목적으로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언약의 주요 본문은 아마도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이 될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반복되는 다른 곳이 많이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다면 주요 텍스트가 될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하는 한 가지 일은 학생들에게 그 장들을 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신 일이나 그를 위해 하시고자 하신 모든 일의 목록을 작성하라는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내는 항목이 15~20개 정도로 풍부합니다.

여기서는 언약을 논의하면서 그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처음 세 구절이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는 11장의 끝 부분을 되돌아보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11장 27절 이하). 아브람은 본래 우르 출신이었으나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북부 하란이라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11장 32절). 이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살펴보고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시 한 번 지도를 상기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매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아브람은 남쪽 우르에 있었고 여기 하란 근처 어딘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계속 읽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본문을 읽는 방식, 나의 극적인 읽기에서 약간의 강조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단지 변덕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 동사 뒤에 있는 히브리어의 문법 구조를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5개의 동사가 있는데 그 중 3개가 2절에 있는데 히브리어로 코호타티브라고 합니다.

코호트에는 특별히 강조점이 있으므로 여기서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의미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리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너를 축복할 작정이다. 내가 반드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내리고 너를 욕되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저주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큰 언약을 실행하시고 이를 통해 열방과 온 땅에 복을 내리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개인은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단지 한 개인의 불순종 때문에 언약의 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절 끝부분에서 많은 역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축복하여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로는 '축복이 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명령이다. 킹 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New American Standard의 여백에 다음과 같은 각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와 be 동사의 부정사 절대절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구성은 우리가 목적이나 결과 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네 가지만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될지라. 오히려 처음 세 가지가 네 번째 것을 목적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네 번째가 작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는 것은 단지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2절 끝에서 그가 복이 되게 하려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위 텍스트를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위대한 부분의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수단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 뿌리는 창세기 초반인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여자 사이에,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씨 자체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창 3장 15절). 그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입니다.

그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매우 불명확하고, 매우 모호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있는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계열을 통해 뱀에 대한 승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추고 더 명백하게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 이제 우리가 2절 끝에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절은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반대로 너를 욕되게 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분명히 신약 시대의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열방에 대한 축복과 땅과 모든 민족에 대한 축복이 그리스도와 그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왔다는 것을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서 자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자신은 여러 번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를 들어 라합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여지게 된 사람으로서.

요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앗수르 나라 니느웨를 축복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 신약에서는 이방인에게만 관심을 가지셨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처음부터 여기 창세기 12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자신의 근시안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자인 요나는 그러한 관점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요나서는 우리에게 더 넓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창세기 12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까? 그 사람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에게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12장 7절에 보면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장인 15장을 통해 그에게 씨앗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

다시 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15장을 짚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후손에 관해 말씀하시며 그들이 나그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외국 땅에서 게르 자신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우리는 그곳이 이집트일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들은 400년 후에 그를 다시 데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15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 곧 그의 자손이 사대만에 돌아오리라 하였느니라.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을 대항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한계점에 이를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와 여호수아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언약입니다. 이것이 구약신학의 첫 번째 큰 기둥인 성경신학입니다.

두 번째 큰 기둥은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발견하는 모든 위대한 문학 작품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에 계속해서 언급된 내용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들은 이 책 끝에서 율법과 그와 같은 것을 지키겠다는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나머지 부분, 구약의 나머지 부분 전체에서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축하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이자 가장 긴 장입니다. 시편 176절의 거의 모든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율례, 그분의 규례, 명령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참된 신자가 생명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 언약을 피해야 할 것과 극복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를 묶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그것에 대해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도 구약성서에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약에 따른 외적인 희생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태도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구약성서의 구원이 행위나 희생, 즉 외적인 것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분법은 구약성서의 다른 본문들과 모순됩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이나 16절 즈음에 마음의 할례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는 그 점과 다른 여러 곳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구약성서 자체도 그 핵심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외적인 지표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구원이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긴장 속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성서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처음 몇 구절을 보십시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많은 약속의 핵심을 이삭에게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래서 3 절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랑있을 께야. 관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그래서 자손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리라. 그래서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하리라.

그들에게 모든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네 씨로 인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의 메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집중하고 싶은 것은 5절입니다. 이는 모두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단어의 순서를 주목하세요. 내 해석에는 그가 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의 책임과 나의 계명과 나의 율례와 나의 법도를 지켰다고 말씀하셨다. 자, 시편 119편을 보면 그 단어들은 모두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언약을 가리키는 데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연대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수백 년 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제공.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유일한 것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모든 행동적 일 등의 측면에서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수 세기가 지나서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세기 후에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나중에 율법을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언약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썼습니다. 즉,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모세 언약이 거대했던 만큼, 그것은 믿음, 즉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종속되며 핵심적인 내용을 더 많이 알려 줍니다.

이제 17장으로 돌아가서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또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17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과 그를 위해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의 목록 중간에 있습니다. 6절 17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로 만들 것이다. 즉, 후손과 왕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관해 우리가 나열할 수 있는 15개 또는 20개 항목 중 축복의 일부는 왕들이 그 계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축복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던져진 18개의 축복과 하나의 가시, 하나의 저주가 아닙니다. 오, 나는 당신의 혈통에서 나오는 왕들과 함께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 점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네게 아들도 낳아 주리라 하십니다.

나는 그녀를 축복할 것이다. 그 여자는 나라가 되고 민족들의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그래서 다시, 왕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세대가 지난 3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엘 샤다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나라와 많은 나라들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그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행하시려고 의도하신 것의 맨 처음, 부분, 그리고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가계에서 나오는 왕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일부 국가의 왕들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과 그 계통에서 나온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 계통에서 나오는 왕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일부이자 소포. 창세기 49장을 조금 빨리 넘기면 이제 야곱의 생애 말기에 12명의 아들이 있고 그들은 모두 이집트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주위에 아들들을 모아 놓고 각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보면 시적인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의 대부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만형부터 시작하여 막내까지 한두 구절씩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축복이 눈에 띄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축복은 특히 두드러집니다.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3분의 1의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유다에 대한 축복도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8장에서 유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몇 가지 나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매춘부 복장을 한 며느리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요셉이 왔다 갔다 하는 다른 지점에서 유다는 나서서 옳은 말을 했고 좋은 축복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하리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이것은 37장 초반에 요셉이 아들들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들은 내려와서 요셉이 바로의 궁정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축복은 요셉이 아닌 유다 계통에 권위가 옮겨지거나 더 많이 거주하게 될 때를 바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0절을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화려하게 장식된 큰 막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세 번째 줄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다른 방식으로 읽힌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왕과 NASB는 실로가 올 때까지 말합니다.

NIV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속한 사람이 올 때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ESV는 그에게 공물이 올 때까지 말합니다. 나는 NIV가 속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NIV를 계속 읽을 것입니다.

즉, 이 홀이 합당한 수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을 내려다보며 그리스도가 바로 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 이전에 다윗이 왕권의 적법한 상속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줄을 어떻게 번역하든 10절의 요점은 왕의 권위가 유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 앞부분에서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나오는 왕들에 대한 차별 없는 약속을 봅니다.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는 이것이 일어날 일이 유다 계열에서 나올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을 내다보며 몇 세기 후에 첫 번째 왕인 사울, 다윗 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면서 확실히 배운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물론 학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스라엘이 결코 왕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 잠시 후에 설명할 내 견해는, 왕권 제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으며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창세기의 이 구절들에서 그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왕에게 한 요구가 최악적인 요구였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전 구절에서 본 내용에 비추어 그것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 언약으로 이어지는 이 왕권 계통을 따르면, 그것은 아브라함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신명기 17장을 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제목이 있는 성경이 있다면 아마도 13절과 14절 사이에 왕의 율법이나 왕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말하는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왕을 갖게 될 때를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신다면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되돌아보며 앞을 내다보며 애굽에서 나온 2세대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앞을 내다보고 그에게 몇 가지에 대해 경고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며 이르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리라 하리라.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시대인 기원전 1400년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를 예상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면 그 일이 약 400년 후인 다윗 시대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15절에서는 너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너희 위에 왕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실제로 왕을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문은 강조된 진술입니다. NIV는 “너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사 절대형에 불완전형을 더한 것입니다. som tasim , 기본적으로 예, 계속하세요.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해줬으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계획의 일부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열방에 있는 왕의 종류와 대조하여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왕의 종류를 제한하는 다음 구절에는 약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16절 중간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성경 역사를 기억해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기 형제 70명을 죽이고 한 사람은 도망하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 3년 동안 왕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는 암살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술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그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16절 끝입니다. 형제 중에서 누군가가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하고 외국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준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신이 말을 많이 획득해서는 안 되며, 말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부분에서 멈추겠습니다.

왕은 말을 많이 얻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나의 기발한 측면은, 글썄요, 하나님은 그들이 경마나 경마 도박에 돈을 걸기를 원하지 않으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은 고대 사회, 특히 이집트에서 군대의 중추였으며 많은 곳에서 전차를 끌었고 전차는 고대의 탱크와 같은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전 중 하나에 있는 이집트 그림에서 발견된 것을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전차를 타고 있는 파라오를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전차를 타고 있는 파라오를 꼼꼼하게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말이 마차를 끌고 있어요. 어쩌면 너무 임신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큰 벽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요점은 그가 싸우고 있는 적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들이 있습니다. 파라오의 말이 적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규모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의 요점은 파라오가 위대한 전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적들의 위대한 정복자이십니다. 그 사람은 사회의 1인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근동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도상학,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그림, 그리고 그들이 건물에 남긴 부조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왕들이 남긴 본문에서도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회 등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에서 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기본 모드는 왕이 위대한 전사였다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가장 위대한 전사는 왕이 되기 위해 승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을 늘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적과 맞닥뜨렸을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른 누구라도 자기를 높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이 전사라고 말하는 전체 신학,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오는 분이라는 신성한 전사 신학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근본적으로 반문화적인 일입니다.

이방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이디어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구한 것은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들은 열방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유형의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합시다.

16절 후반절에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니 너희는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세 번째 요점은 말을 많이 획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요점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어떤 외국 동맹도 맺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십시오. 또, 나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슬프고 아이러니하게도 수백 년 후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처벌. 그러나 하나님은 70년 후에 당신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마세요.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 집을 짓고 뿌리를 내리며 심은 곳에 꽃을 피우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고 슬프게도 그들은 예레미야를 납치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예레미야가 죽은 곳이다. 이것이 바로 여기 금지 사항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점은 외국과의 동맹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지니 이는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함이니라. 따라서 여기서의 전형적인 생각은 왕이 외국 동맹을 맺고 있고 아마도 딸을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딸인 당신이 외국 왕과 결혼한다면 나는 당신의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점, 그는 자신을 위해 과도한 은과 금을 획득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그가 은과 금을 더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왕은 자신을 부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읽고 이 지점에 도달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 일종의 홀로그램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도 제가 바라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수백 명의 아내가 있었고, 수천 마리의 말이 있었고, 수백 명의 아내가 있었고, 막대한 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상적인 왕의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위대한 사람이었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매우 지혜로웠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많은 잠언 등을 썼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생애 말기에 그는 그의 마음을 빼앗은 아내들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주님. 열왕기상 11장에서는 그가 바로의 딸과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다른 이방의 딸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왕의 유형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여섯 번째 기준이 있다는 무대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는 다시 한번 심오한 반문화 기준이며, 이스라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들의 관행으로부터 눈에 띄고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숭배하는 방식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 대신에 한 분의 신을 숭배한 것과 제물과 그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갖게 될 왕의 종류도 그들이 갖게 될 왕의 종류가 실제와는 매우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왕들과 나라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될 내용의 서문입니다. 이제 사사기로 가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을 펴면 여기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구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여기의 문맥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가 사사 중 한 사람인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6장에서 제단, 이교 제단을 헐었고 7장에는 군대와 함께한 기드온의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32,000명의 남자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면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결국 10,000명으로 끝나지만 다시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책에 나오는 어떤 방법으로 마셔야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결국 300명만 남고 그들이 갈 미디안 사람은 수천 명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전체 요점은 단지 300명의 남자 대 이 수천 명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승리가 온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다면 이스라엘의 승리가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리가 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 자신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우리는 전투와 승리를 보고 물론 그들이 왕을 잡는 등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전투의 여파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특히 사사기 8장 22절과 23절에서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 일이 진 후에 그들이 이기고 이르되 우리의 왕이 되라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기드온에게 묻습니다. 기드온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미디안의 손에서 그 땅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바보입니다. 그들은 300명에 대한 7장의 교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정복한 영웅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드온 사람들은 왕이 누구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정확하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모든 말이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내가 위대한 전사이기 때문에 왕이 되기를 바란다면, 아니,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며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나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직후에 그는 일종의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있었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24절에서 그는 그에게 그들의 모든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이 그와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습니다.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행하고 그 음행을 행하여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올무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는 그들의 리더로서 행동하고, 나에게 당신의 물건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에게는 7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31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을 낳은 첩이 있어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약간의 교훈을 드리자면, 여러분 대부분은 이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람어 단어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에서 찾아보세요.

아버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비슷합니다. 바로 Av입니다. 그리고 끝에 i가 있으면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 단어가 있으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가 왕, 내 아버지가 왕이라고 지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큰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기드온이 옳은 말을 했어도 끝내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자. 그리고 물론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9장에서 왕으로 자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왕의 이미지, 이상적인 왕 신명기 6-17장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 펼쳐지는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판사들과 함께 한 가지 일을 더 할 것입니다. 즉, 책의 끝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련의 반복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7장 6절에서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18장 1절 그 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더라. 19장 1절,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는데, 이는 대략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 책은 17장 6절과 같은 음표로 끝납니다. 21장 25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녹화 시리즈에서 판사에 관한 책을 강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삶에 일종의 하향 궤적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순환을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순환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향 사이클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끝 부분의 이야기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고, 책의 저자는 이스라엘에 경건한 왕이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 문구는 자신의 눈에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나의 박사과정 교수님 중 한 분을 포함한 일부 학자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이며, 이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왕이 없었던 평화와 조화의 시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왔을 때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이 나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합니다.

공백의 눈에 옳은 일을 행한다는 표현은 구약에 40번 나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30번, 자기 눈에 옳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번 자신의 눈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일종의 중립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근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녹색 완두콩을 원하시나요? 무엇이든지 네 눈에 옳은 대로 행하라.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다른 경우, 나머지 8번은 항상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자기 눈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로서, 모델로서 경건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손가락을 여기에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신명기 구절로 다시 데려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곳의 본문에 대해 한 가지 말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을 사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붙잡고 신명기 12장, 17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목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18-20절은 경건한 왕이 해야 할 일, 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혼하지 말며 말과 아내를 늘리고 장가드는 등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왕이 할 일을 18절에서는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의 승인을 받은 이 율법서의 사본이 책에 있느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평생에 그것을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여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는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계명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왕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인 토라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그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열쇠는 위대한 전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제 판사의 발언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따르는 모범이 될 경건한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위대한 전사의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전사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으며 왕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제사장과 재판관, 왕과 선지자의 직분을 생각하는데,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는 영적인 직분입니다.

왕과 재판관은 정치적, 행정적 직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사들과 왕들조차도 그들에게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모델이자 지도자가 될 왕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뒤집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반대로 이스라엘에 경건한 왕이 있었다면 상황은 이 지경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기 메시지의 요약은 저자가 작은 깃발을 흔들며 우리에게서 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맞서기 위해 경건한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윗 언약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언약과 왕권에 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마지막 일은 사무엘상 8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최악된 요청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본 내용의 맥락에 넣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늙으며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는 귀를 쫓긋 세워야 합니다. 첫째, 누군가가 스스로 판사를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사기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다음 사사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권한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풀리기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닙니다.

둘째, 누군가가 왕조 계승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사사들이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을 임명하고 사사라는 가문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앞서 본 것보다도 상반됩니다. 따라서 상황이 풀리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해서는 안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익 등을 추구하여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백성의 장로들이 4절과 5절에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너는 늙었고 네 아들들은 네 길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히브리어로 우리를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버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준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의 주요 기능인 사사기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들은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맞서기 위해 다음 재판관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은 재판관들이 했던 일, 즉 그들을 전쟁에서 이끌도록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심사위원들이 임시적으로 다른 시대, 다른 장소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길을 갔다. 왕은 확립된 관료주의를 가진 사람일 것이고, 큰 부담이 될 확립된 기관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여기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기들도 재판할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주변에 있는 것을 모델로 삼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사무엘이 이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들은 당신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무엘상 8장에서 왕을 구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배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이 없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왕이 되셔야만 하며 결코 인간 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최악된 요청에 대한 일종의 하나님의 마지못해 차선의 양보였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의 견해는 왕권의 직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특별한 형태의 왕권, 반문화적인 종류의 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그들이 어떤 왕, 즉 이 모델을 따른 왕을 요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11절부터 18절까지에서 왕이 받게 될 모든 무거운 짐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제 19절에서는 백성들이 계속 거절하고 그들의 동기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위에 왕이 있어야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5절에서 우리 왕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5절에서 알았지만 20절의 마지막 절은 그가 우리보다 앞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실 수 있다는 진정한 동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요구한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토라 연구를 인도할 왕을 달라고 했다면 사무엘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요점은 그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종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최악적인 요청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나라들을 축복하는 수단이 된다는 생각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으로 이어진다. 그건 직접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이었으나 여러 차례 자신의 발에 총을 쏘고 왕위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후 유다 계통의 다윗이 세워졌고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항상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신약성서까지 추적하여 위대한 새 언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럼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살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분명히 책의 서문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1-1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조각당 14개의 이름으로 구성된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총 42개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초반을 보세요. 1절은 본질적으로 책의 제목일 뿐만 아니라 족보의 제목이기도 하다.

2절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16절에서 예수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책의 제목 곧 족보의 제목이 이것을 말하니 곧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니라. 자, 이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모두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42개의 이름 중에서 왜 그 두 이름을 책 제목으로 선택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 대답은 마태가 말하고 있는 언약의 그림에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는 구약 신학의 두 정점에 새 언약 이야기를 고정시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구약 전체에 걸쳐 쌍둥이 기둥이며, 그것이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해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지 그 두 이름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 두 이름을 사용하여 구약 신학의 두 정점 위에 세우고자 하는 신학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의 틀을 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 맥락에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서부터 룻기까지를 가르치는 David Howard 박사입니다. 세션
11, Covenants Excursus입니다.